

대학 교양 수업의 경험적 글쓰기 교육연구

안희은¹⁾

A Study on the Experiential Writing Education of College Liberal Arts Class

Hee-Eun An¹⁾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에서 교양으로 배우는 글쓰기 수업에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쓰기는 복잡한 사고와 표현이 필요한 활동으로 각 대학에서는 글쓰기 수업을 통해 주체적 시각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쟁위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시각을 확립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글쓰기에 대한 학습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여 글쓰기 향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수업들은 대부분 복잡하고 기계적인 수업을 강요하고 있어 학생들은 긴장, 불안감 등의 부정적 인식이 커 질 수밖에 없으며 기술적 글쓰기에 제한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지만 실제적인 방법은 아직도 미미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업 전·후 쓰기에 대한 반응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핵심어: 긍정적 동기, 자신감, 교양 글쓰기, 경험적 글쓰기, 흥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way for learners to have positive motivation in writing class which is taught in liberal arts at university. Writing is an activity that requires complex thinking and expression. Each university aims to develop critical thinking through writing lessons and to develop critical thinking. Establishing these logical thoughts and critical perspectives in a competitive societal society in Korea is essential.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learners to develop their own abilities by learning to write and to experience writing improvement. However, most of the existing classes are forced to use complex and mechanical lessons, so students are forced to increase negative perceptions such as tension and anxiety, and are limited to technical writing. There are various studies to overcome this, but practical methods are still lac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sponses and problems of writing before and after class. They will have a positive awareness of writing, and will make arrangements for continuing and possible in writing.

Keywords: Positive Motivation, Confidence, Cultural Writing, Experiential Writing, Interest

Received (January 29, 2019), Review Result(February 21, 2019)

Accepted(March 13, 2019), Published(March 30, 2019)

¹⁾Assistant Professor, 49104 Dept.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Kosin Univ, 194 Wachi-Ro, Yeongdo-Gu, Busan, Korea

E-mail: anheeeun@kosin.ac.kr

1. 들어가기

글쓰기는 복잡하고 정교한 표현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한 개개인의 비판적인 사고력과 메타인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대학 글쓰기에서는 이러한 사고능력을 증진시키는 목표를 가진다. 이에 더 나아가 글을 쓰는 행위는 전문적 학습에 기술되는 것에서 초월한 글쓰기 즉, 글쓰기 자체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 모든 학습의 동기가 되는 것은 핵심적인 목표가 된다. 따라서 글쓰기를 하는 학습자는 끈기와 인내, 비판적 사고와 몰입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글쓰기는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대학에서 행해지는 글쓰기 교육은 졸업을 위한 필수교과이며, 1주일에 1~3시간 정도 할 수 없이 수강해야 하는 힘든 수업으로 치부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와 각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는 기계적이고 단순한 이론중심의 성격에 머물러 있어 궁극적인 글쓰기의 목표와 맞지 않다. 이러한 글쓰기 수업을 보면 대부분 복잡한 주제와 과제 등 자신과 관련 없는 즉, 나를 배제한 쓰기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글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부담감과 함께 위축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는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기 경험적 글쓰기를 제안하였다. 경험적 글쓰기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창조적인 내용물로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고 새로운 상황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을 표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지속, 가능한 글쓰기의 긍정적 동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대학의 글쓰기 수업에서 긍정적 동기를 찾기 위해 교수자는 주입식, 기계적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학습자 스스로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동기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연구자가 실제 대학교양 글쓰기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험적 글쓰기 수업의 사례를 들어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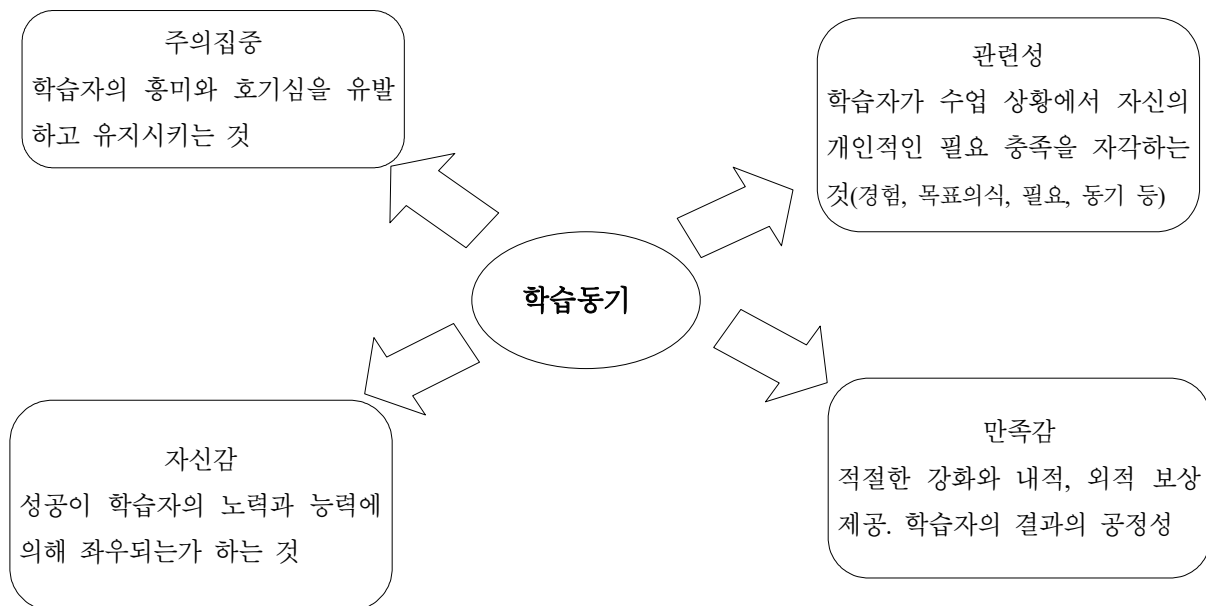
2.1. 동기와 학습동기

심리학에서 동기는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나 직접 요인의 총칭으로 ‘움직이다(move)’의 라틴어 movere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행동을 조작하고 활기 있게 하는 힘’,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활기차게 하고, 유지시키고, 방향을 지우고 중지시키는 내적 힘’ 등으로 표현하여 정의[1]하고 있다. Petri(2001)[2]는 동기(motivation)의 정의를 “유기체에게, 혹은 유기체 내에서, 작용하여 행동을 시작시키고 방향을 지어주는 힘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고 행동의 강도(intensity)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Reeve(2015:8)[3]는 동기는 행동을

시작하게 하여 지속, 변화의 과정을 거쳐 목표를 지향하고 최종의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행동의 시작과 끝은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기는 이를 넘어 사람의 생각과 사상, 감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람마다 동기가 다르게 나타날 때 행동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사람들의 노력이 높거나 낮아지며, 끈기가 강하거나 약해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동기는 성공적인 학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도구로 특히 대학 글쓰기 강좌에서 학업 수행에 대한 학습의지와 욕구, 끈기 등을 통하여 글쓰기에 대해 자발적인 수행과 지속가능한 상태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학습과 연관된 동기는 Keller(1999)[4]의 ARCS 모델을 들 수 있다. 그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시키기 위하여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학습모형이다. Keller는 동기 유발 전략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이다.



[그림. 1] Keller(1999)의 ARCS 모델
[Fig. 1] The ARCS model of Keller (1999)

먼저 Keller(1999)가 설명하는 주의 집중은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것으로 학습자의 관심, 호기심 자극, 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업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것이다. 둘째, 관련성은 학습자가 수업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 필요 충족을 자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수업과 학습자 경험의 관련, 학습자의 목표의식, 학습자의 필요나 동기와 부합된 교수전략에 대한 것이다. 셋째,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과 동료, 학습 내용에 대한 적절한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성공에 대한 기대감, 성공 경험을 위한 도전감, 개인적 조절감으로 성공이 학습자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만족감은 학습자는 수업에서 적절한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을 받는데 이는 학습자의 내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운 내용의 적용 기회 제공, 적절한 강화와 외적 보상 제공, 학습자의 결과의 공정성이 속한다. 이러한 동기유발 전략으로 글쓰기 수업에 적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동기유발과 글쓰기 수업의 관계

[Fig. 1]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induction and writing lesson

주의집중	글쓰기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시켜야 한다. 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관련성	글쓰기 행위 자체를 개인적인 필요와 목표의식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의 경험과 필요, 동기 등이 필요하다.
자신감	교수자는 글쓰기 과제와 학습목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이러한 과제 수행을 잘 지켰을 경우, 이 교과목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에 뒤떨어진 학습자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주제로 과제제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 개인차에 의한 문제를 조절하여 개인의 노력에 따른 성공적인 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만족감	글쓰기 수업을 통해 학습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수업에 대한 주의집중, 자신감으로 인하여 과제를 수행하였을 경우 얻게 되는 보상은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을 맞보고 내재적 만족감을 느끼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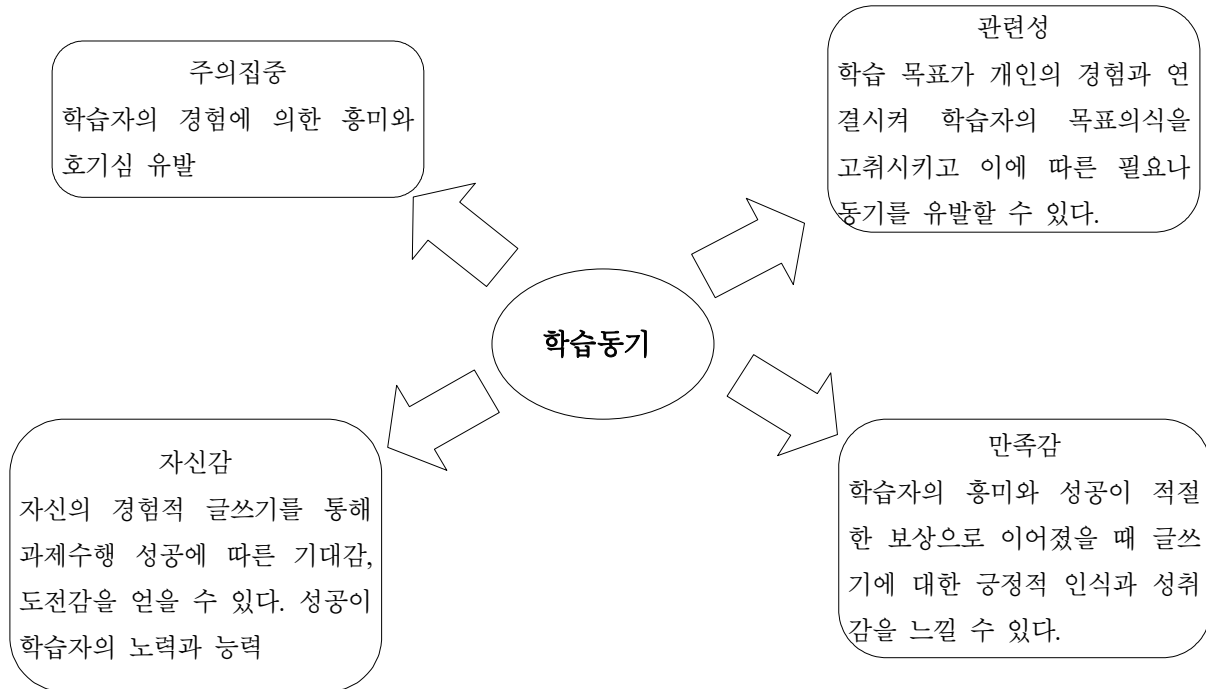
2.2. 경험적 글쓰기의 의미와 특징

대학 교양 글쓰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학술적 글쓰기와 자전적 글쓰기가 그것이다. 고등학교를 마친 학습자들의 경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적 글쓰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연구 성과로 입증되고 있다[5],[6]. 이러한 글쓰기의 경우 과거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경험적 글쓰기의 용어는 자기표현적 글쓰기, 자기탐색 글쓰기, 자전적 글쓰기 등의 용어로 사용되며, 보통 자서전, 일기, 유서, 편지, 자전적 , 자기소개서, 수기[7] 등의 ‘수필’ 형식으로 쓰인다.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데 이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고,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는 것에 김윤경(2015)[8]은 자아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이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험적 글쓰기는 자신의 자아의 과거로부터의 경험적 이행을 토대로 성찰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공동체 및 나아가 사회와 상호작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글쓰기는 앞 절에서 제시한 Keller(1999)의 ARCS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림. 2] Keller(1999)의 ARCS와 경험적 글쓰기의 관계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ARCS and empirical writing by Keller (1999)

위의 표와 같이 경험적 글쓰기는 학습자의 경험에 대한 흥미, 호기심, 개인의 목표의식 고취, 과제수행에 대한 성공적 기대감, 도전감을 통해 자신감을 글쓰기에 대한 학습자 개개인의 긍정적 인식과 성취감으로 만족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글쓰기에 녹아들게 되면 학습자는 과거로부터 ‘치료’라는 심리적인 결과를 얻는다. 채연숙(2010)[9]은 글쓰기치료에는 반드시 글을 쓰는 사람의 자기정의를 수반되어야 하는데 글을 쓰는 이유, 글을 쓰는 의미 및 글의 성격 등을 시작부터 결정해 놓고 글을 쓰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는 사람의 경우 그냥 막연히 적어 내려가는 일기의 내용일지라도 글을 쓰는 과정에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리되고 마무리된다. 이를 통해 그 다음에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무엇을 다음의 과제로 삼아야 할지가 명확해진다. 이렇게 일상적인 기억이 강화되고 기억된 글을 정리하는 사람의 행동을 계획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일기라는 글쓰기 형식은 글쓰기 치료의 가장 단순한 기술이자 동시에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쓰기 치료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의 글, 자신만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자기만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한 내면의 정서를 언어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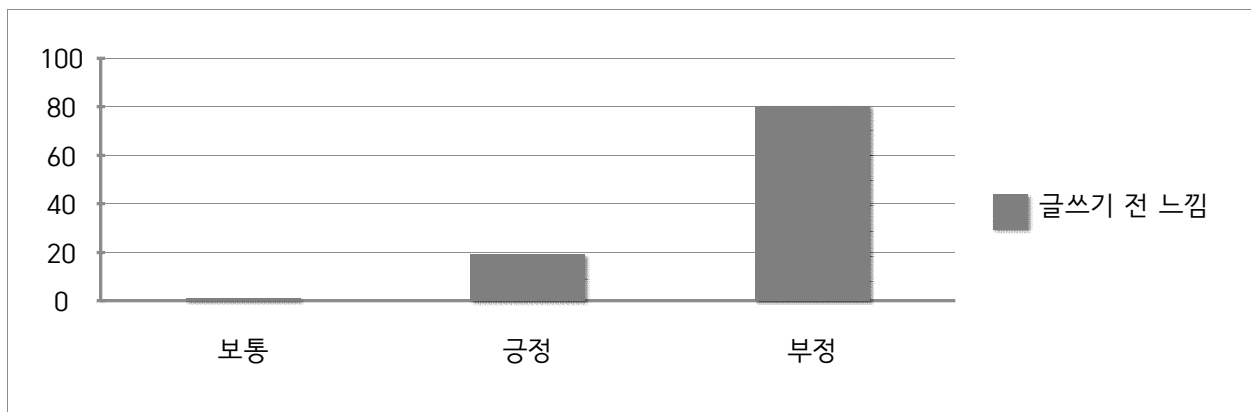
2.3. 경험적 글쓰기교육의 사례

2.2.1 학습자 정보 및 연구방법

이 수업은 2017학년도 2학기로서 시기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이며, 부산의 K대학의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수업을 수강하는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강생은 총 117명으로 간호과 39명, 사회복지과 22명, 직업재활학과 20명, 보건환경학과 16명, 식품영양학과 20명으로 분반되어 강의하였다. 학기 시작할 때 대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간단한 서술형 글쓰기를 실시하였고, 경험적 글쓰기 교육을 시행 한 후 또다시 글쓰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2.2.2 대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인식조사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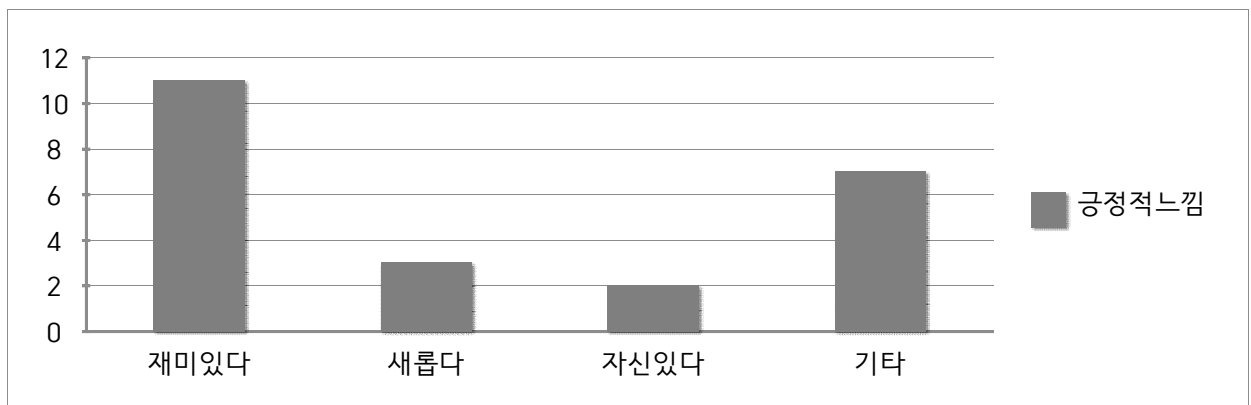
대학 교양 글쓰기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각 개인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업 전 ‘글쓰기에 대한 느낌, 생각’ 을 간단히 서술하게 하였다.



[그림. 3] 글쓰기 수업 전 글쓰기에 대한 느낌

[Fig. 3] Feeling about writing before writing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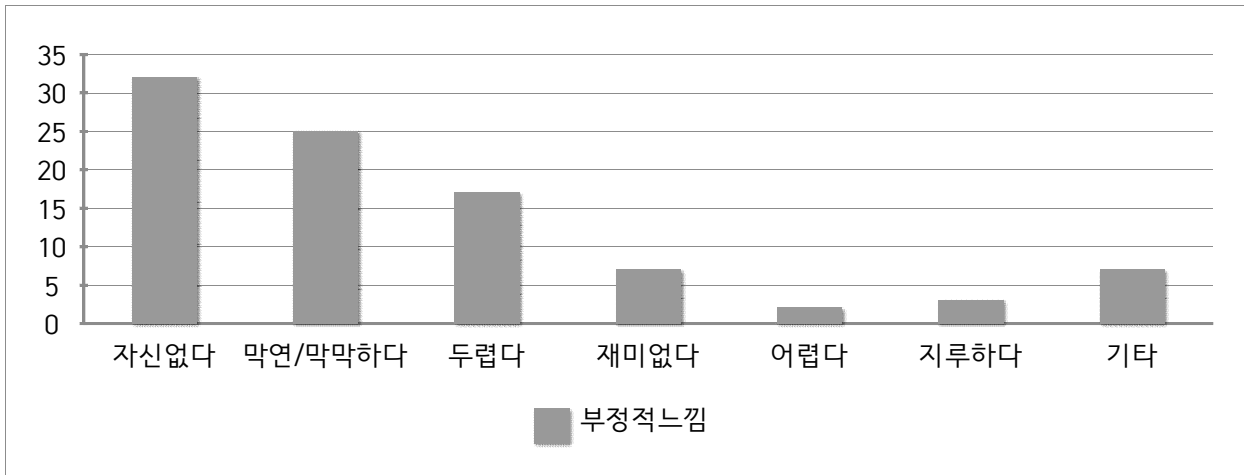
결과 분석을 크게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으로 나누어 본 결과, 총 117명 중 80%가 글쓰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19%만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4] 긍정적 인식 분석

[table.. 4] Positive cognitive analysis

글쓰기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재미있다’ 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들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때 글쓰기로 인해 상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동아리로 ‘문예부’ 를 한 학생들이었다.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성공한 경험, 이로 인한 만족감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겠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표현들을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5] 부정적 인식 분석

[Fig. 5] Negative perception analysis

위의 분석은 학습자들의 서술 중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어휘 및 표현을 추출하여 결과를 내었는데 부정적 인식을 가진 학생들 중 많은 수가 글쓰기에 대하여 ‘자신이 없다’ 와 글을 쓸 때 무엇을 써야 할지에 대한 ‘막연함/막막함’, ‘두려움’ 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글쓰기에 대해 평소 ‘재미없다’, ‘어렵다’, ‘지루하다’, ‘관심없다’ 등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초, 중,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수업에서 글쓰기를 기계적 혹은 강압적으로 과제를 수행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 학습하는 글쓰기는 선행된 교육과 달리 장기적, 지속 가능한 글쓰기를 목적으로 교수. 학습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긍정적 동기를 학습자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2.2 경험적 글쓰기의 수업 진행과정 및 사례

본 연구자는 2017학년도 2학기 시기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 총 15주 기간 중 총 6주를 경험적 글쓰기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이 때 경험적 글쓰기를 따로 주제와 상관없이 편성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글쓰기 유형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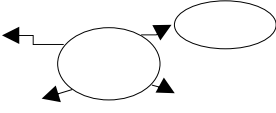
[표. 2] 경험적 글쓰기의 수업 진행과정

[Fig. 2] Class process of empirical writing

내용	차시	수업과정
1. 자신에 대한 글쓰기 I - 대학생이 되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3가지 쓰기	1차시	대학생이 되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3가지
2. 자신에 대한 글쓰기 II - 나를 드러내는 글쓰기	1차시	나의 소개-나의상처-치유과정(시도, 노력, 도전)-온전한 나/지금의 나의 상태
3. 성찰적 글쓰기 I - 내부성찰	2차시	자기반성에세이, 자기성찰에세이, 자기치유 글쓰기
4. 성찰적 글쓰기 II - 외부성찰	2차시	영화 : 자기성찰 주제 영화 영화를 통한 자기성찰 하기

1번 ‘자신에 대한 글쓰기’의 경우 ‘K대학’ 편찬의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10]’ 교재의 1과 ‘새내기와 글쓰기’에 나와 있는 주제로 진행하였고, 2번은 교재 ‘글쓰기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3, 4은 교재 ‘성찰적 글쓰기’와 ‘비평적 쓰기’에서 각각 활용하였다. 결국 경험적 글쓰기는 대학 교양의 글쓰기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글쓰기 유형의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그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아래의 자료는 학생들이 주제에 맞게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본 연구자가 사용한 자료이다. 이러한 수업은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도입 단계로 특별로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타인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고 간단한 개요 쓰기로 시작하여 긴 글쓰기로 이어 나갔다. 위와 같은 ‘자기 성찰적 글쓰기’의 경우 피드백은 과제지에 교수자의 조언 및 격려 등을 담은 것으로 끝을 맺었다.

1.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그때의 시기, 날씨, 마음, 사람, 환경 등)



2. 구체적으로 그때의 심리적 상태를 적어보자.

3. 앞의 글을 바탕으로 나의 삶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일을 글로 써 보자.

[그림. 6] 성찰적 글쓰기의 수업자료 예시
[Fig. 6] Examples of Reflective Writing Materials

_____학과 _____학번/이름_____ / _____

1. 영화평 ☆ ☆ ☆ ☆ ☆

2. 이 영화를 보는 동안 마음에서 일어난 자신의 감정 상태에 주목하여 질문을 던져보고, 그 이유를 간략히 써 보기

있었다. 아래의 표는 학과 별 글쓰기 수업 후 느낀 점을 나열한 것이다. 기존의 부정적인 느낌 즉, 글쓰기에 대해 자신없다, 재미없다, 두렵다, 막연하다 등을 가졌다면 경험적 글쓰기 수업을 통해 ‘재미있는 과목, 유익하다, 실력이 향상되었다, 친숙해졌다, 흥미를 느낀다, 자신감이 생겼다, 막힘없이 글을 쓸 수 있다.’ 등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경험적 글쓰기 수업으로부터 각 개인은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글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수업 후 글쓰기에 대한 평가

[Fig. 3] Evaluation of post-class writing

<p><간호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 쓴 것을 모아서 보니까 뿌듯했다./신선하고 도움이 되는 수업/ 다른 교양보다 재미있었다./단지 어려운 과목이 아닌 재미있는 과목임을 알 수 있었다. ◎ 한 학기 동안 많이 늘었다./유익하고 재미있었다./많은 것을 얻은 느낌이다./실력이 늘었다./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겠다. ◎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면서 평소하지 않았던 글쓰기가 재미있었고 실력이 향상되었다. ◎ 글쓰기가 친숙해진 느낌이다./글쓰기에 유연성이 생기는 기분이다./많이 써야 많이 는다는 것을 알았다./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되었다. 	<p><사회복지학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루할 줄 알았는데 재미있었다./가치관을 정립, 의견을 구성할 수 있었다. ◎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좋은 수업이었다./재미있고 유익했다./과제가 많았다. ◎ 도움이 되었다./간결하게 쓸 수 있게 되었다./글쓰기를 통해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었다. ◎ 그나마 어떻게 써야 할지 개념을 알 수 있다./재미있고 새로웠다./다른 글쓰기에 도전하고 싶다. ◎ 글을 쓰면서 흥미를 갖고 있는 나를 발견/쓰는 방법과 흥미를 느꼈다.
<p><직업재활학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글 쓰는 법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 흥미있는 과목, 책읽기는 싫었다./글쓰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어렵다. ◎ 자신감이 생겼다./재미있었다./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자신감이 생겼다./막힘없이 글을 쓸 수 있었다. ◎ 흥미가 조금 생겼다./좋은 글쓰기를 알게 됨./좋은 수업이었다. ◎ 두려웠지만 잘 해낸 것 같아 뿌듯하다./재미있고 편안한 분위기/ 생각하는 시간, 비평을 배우면서 도움이 됨./재미있었다. 	<p><식품영양학과, 환경보건학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미롭다./글쓰기에 밑받침이 되었다. ◎ 재미있다./능력이 늘다. ◎ 다양한 글쓰기가 좋았다./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 ◎ 재미없다./힘들었다. ◎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었다./재미있었다./성찰하는 기회. ◎ 재미있었다./다양한 글쓰기./재미있다. ◎ 많이 배웠다./활동이 많아서 재미있었다. ◎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팀플이 좋았다./경험, 생각이 녹아들어 갔다.

3 결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쓰기는 정교하고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고도의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글쓴이의 동기가 수반되지 않으면 소극적이게 되며, 긴장과 불안, 자신감 결여 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시키지 못한다면 대학의 교양 글쓰기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특히 학습에서의 동기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본고는 대학에서 학습자들이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 긴장감을 억제하고 흥미와 끈기, 즐거움 등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경험적 글쓰기를 제안하였다.

본고에서 실제 연구자가 대학 교양 글쓰기 수업에서 적용한 결과 대학에서 처음 접하는 글쓰기에 대해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관심이 없거나, 흥미가 없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글쓰기에 대한 동기유발과 함께 성공적인 글쓰기 수업을 목표로 경험적 글쓰기 수업을 활용하였다. 경험적 글쓰기 수업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스스로 글쓰기에 참여함으로써 글쓰기 자체로도 삶에 대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의미한 도구가 되며, 학습자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통해 성찰하고 비판 및 반성으로 성숙된 자아를 다듬는 일련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글쓰기에 대한 흥미와 관심, 열정, 즐거움 등의 동기적 요소로 인해 지속, 가능한 글쓰기의 궁극적 목표에 이르게 한다. 경험적 글쓰기 수업 후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평가 및 설문조사로 인해 경험적 글쓰기가 동기유발을 하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와 함께 경험적 글쓰기의 사례 및 예시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현장의 다양하고 유의미한 연구 및 교수방법들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eung Yun hee, A Study on 'Healing Writing' Technique and Learning Methodology - Focusing on association and dissociation -,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2015), Vol.15, No.7, pp.357-382.
- [2] Herbert L. Petri, *Motivation*, Thomson Learning (2001)
- [3] Johnmarshall Reeve,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John Wiley & Sons, Ins (2015)
- [4] Bo Yoon Yoon, About writing education through the learner's motivation, *Humanities Research* (2015), Vol.99, No.2, pp.299-322.
- [5] Choi, Jong-Hwan, A Study on 'Healing Writing' Technique and Learning Methodology - Focusing on association and dissociation -, *Liberal Education Research* (2016), Vol.10, No.4, pp.579-604.
- [6] Suk Ki Choi, Educational Implication of Expressive Writing, *Writing Research* (2007), Vol.5, pp.205-237.
- [7] Youngjin Kiem, Hyum Nam-Sook, Autobiographical Writing Education Based on Self-Reflection - Focused on Van Manen's View about the Description of Lived Experience and the Interpretation of Its Meaning -, *Liberal Education Research* (2017), Vol.11, No.2, pp.149-174.
- [8] Yeon Sook Chae, *Healing in Writing -theory and real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0)
- [9] Kim Yunkyung, A Case Study about the Education of Self-Expressive Writing through Sensuous Writing - Focusing on " Special memory about the smell" Writing Practice, *Korean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2015), Vol.145, pp.215-242.
- [10] Kim, Se - Kwang, Young - Jong Kim, Won - Jin Kim, *Creative Writing for Newbies*, Koshin University Press (2016).
- [11] Kim Yunkyung, A Case Study about the Education of Self-Expressive Writing through Sensuous Writing - Focusing on " Special memory about the smell" Writing Practice, *Literacy Research* (2015), Vol.- No.17, pp.11-32.